

LOCAL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행복한 완도 구축...지속가능미래 4대 전략 수립

영광, 교통환경 개선 앞장

영광읍 일대 단속 카메라 설치

영광군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지역공동체 참여 교통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영광읍 일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지자체, 경찰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신규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지는 최근 3년간 사고가 집중된 신하교차로(18건), 종산교차로(10건), 남천사거리(12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2기, LED 유도등이 포함된 활주로형 횡단보도 2개소가 설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주민과 행정, 경찰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고 없는 안전한 영광,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무안, 독서문화 확산 박차

국회도서관서 700권 기증받아

무안군은 지역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 책 700여권을 기증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국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2025 도서기증사업’의 하나로, 서삼석 국회의원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내 무안군립도서관에서 열린 도서기증식에는 김산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지역 작가, 문인협회 회원, 도서관 이용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기증식 이후에는 ‘전성태 작가 초청 강연’도 열려 군민들이 문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전성태 작가는 전남도의 ‘전남도민 올해의 책’ 함께 읽기’ 202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여기는 괜찮아요’를 집필한 소설가로,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기증받은 도서들은 무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무안군의 발전을 이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독서문화가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기후위기 대응·탄소 중립 등 17개 목표 설정

신우철 군수 “군민 체감형 실질적 정책 추진”

완도군이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경제, 사회,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완도군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 경제

구축,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참여·협력·소통 행정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협치 강화 등 4대 기본 전략과 17개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해조류 활용 탄소 중립 실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양쓰레기 저감,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 경제 구축을 위해 스마트 양식업과 친환경



완도군은 최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경제, 사회,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완도군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도형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해양 관광을 활성화한다.

완도의 대표 산업인 수산업은 지속 가능한 방식의 산업으로 전환하고, 해양친유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

유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참여·협력·소통 행정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협치 강화를 위해 군민 참여형 정책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 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군은 전략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있어 군민, 전문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전략을 기반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완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 개장 ‘북적북적’

관광객 5000명 방문...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가득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개장 첫날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활기를 띠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9회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지난 12일 마량항 중방파제 일원에서 개장. 5000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은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2015년 처음 개장한 이후 지난해까지 연인원 112만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 1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강진의 대표 관광장이다.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은 오는 10월 25일 까지 매주 토요일, 약 30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개소로 횡집 등 음식점 7개소, 수

산물코너 7개소, 건어물 판매장 2개소, 길거리음식 6개소, 할머니장터 10개소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이번 놀토수산물시장은 콘텐츠 면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행사장 곳곳에 스테스코 포토존을 조성했으며, 이색 체험인 AI 캐리커처 포토 부스도 마련됐다. 현장 구매 영수증 제시하면 도로케리커처 또는 홍보 물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토요일은악회는 야외무대를 신선헤댄스공연, 미술쇼 및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보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아간에는 LED 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가 어우러진 야경이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군은 강진에서 사용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강진 반값여행’의 혜택과 더불어 관광객 방문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구 마량놀토수산물시장 상인회장은 “올해에도 신선하고 맛 좋은 수산물을 친절하고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너 많은 분들이 마량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반값 여행 혜택으로 마량을 비롯해 강진 곳곳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며 “여기에 군민들도 정성을 다해 손님맛이를 하고 있어 전국적인 불황 속에서 강진군은 폐업 없이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1차 농수축산물 판매도 늘어 강진군의 정책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강진 마량놀토수산물시장이 개장 첫날 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활기를 띠었다.

신안,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150억 투입...청년 유입 등 인구소멸 극복

신안군은 최근 해양수산부의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사업은 청년 어업인 진입 장벽을 완화해 신규 인력 안착과 함께 어촌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위치는 신안군 지도읍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인근이다.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왕새우 기반의 육상 스마트 양식장을 조성해 임대, 매년 8~16명의 청년 어업인에게 연간 8000만원의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라, 순환여과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재해 위험성을 낮추고, 사육환경 데이터

측적으로 최적의 성장 조건을 도출해 활용함으로써 신규 어업인의 양식 성공 확률을 높일 구상이다.

이 밖에도 인근 부지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400억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60억원), 왕새우 FPC(60억원) 등이 조성 중에 있어 종자 공급, 사료 생산, 양식, 유통·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로 새우양식 산업의 전 과정을 갖추게 되는 만큼 청년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안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귀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주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화순, 21일부터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접수

6월 추첨·하반기 입주 예정

화순군은 오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정책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자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할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고려해 혼인 증명서류 제출 시기를 혼인 후 제출로 조정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국!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베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주)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월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9만원으로 만기 시 80% 환급(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무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읍 산 지 점 062)526-0222~3

지 광 지 점 062)381-8212~3

상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읍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전 지 점 062)371-2772~3

읍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 고 을 지점 062)531-1213~5

양동선동별지점 062)361-4472~4

기이저지지점 062)385-4977~8

동림애니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장) 062)364-8400

유익애니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